

李대통령 회견 국회개원 앞당길까

# 재협상 언급 없어 당장 개원 힘들 듯

### 민주, 이달 말 개각후 등원 여부 판단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세진 구상을 밝힘에 따라 18대 국회가 조속히 개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분위기는 즉각적인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등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최고기 재협상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의 내용을 담은 가족연결병역법 개

정 등 요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방미단의 추가협상 결과가 '30개월 이상 최고기 수입금지'로 귀결되더라도 야권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민주당이 18일부터 전당대회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20일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밝힌 것 등 국회 안팎의 환경도 등원론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등원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조만간 나올 쇄고기 추가 협상 결과와 한나라당의 등원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전격적인 등원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등원 거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각개편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국회가 이를 방지할 경우 '국정공백'에 대한 책임의 불뚱이 민주당으로 뿔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고유가와 물류 대란 등으로 약화된 민생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부담이 결국 조만간

여야의 등원 협상을 서두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들어가 화물대란 등 경제문제를 처리하려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와 미국이 벌이는 추가협상에서 국민이 이해할만한 성과가 나오면 일단 등원하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등원론에 무게를 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등원 시기는 빨라도 내각개편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 후보(왼쪽부터)가 19일 오전 제주시 KAL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리더십 기르고... 포용력 넓히고...

### 민주 당권 주자들 '약점 보완' 골몰 세후보 모두 화합·통합 이미지 강조

통합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 후보 3인이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원 확보 면에서 가장 앞서나 가며 '대세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의 최대 약점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세균 후보에게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당원들의 중평이다.

때문에 정 후보 측은 남은 토론 회를 통해 좀 더 강한 야당 리더의 면모를 심어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19일 "차분하고 안

정하게 토론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너무 젊다는 모습만 강조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적 지지에서도 정세균 후보를 앞서는 추 후보의 장점은 강성 이미지, 소수 야당 대표로서 필요한 이미지다. 하지만, 이 장점이 득표 과정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다. 독선적이어서 당이 화합적 통합을 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추 의원 측에서는 앞으로 '통합·화합론'의 세일즈에 공을 들인다는 전략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결같이 본의를 반대해 왔고 계파를 초월한 당평 인사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에 적합한 포용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이미

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후보의 최대 약점은 구정치인 이미지, 새롭게 태어나야 할 민주당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대철 의원 측은 이를 '말형론'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화합과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들 세 후보의 약점 보완 전략은 19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합동 기자회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대철, 추미애 후보는 전날 TV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 실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세균 후보에 대해 협공을 펼쳤고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통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편가르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후보는 그러나, 하나같이 자신이 당의 통합과 화합의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정부 국민 감정 인식 못해 위기 자초”

### 광주 찾은 진영 한나라 의원



"최고기 문제는 재협상이 원칙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다면 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9일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 방문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진영 한나라 의원(서울 용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털어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뒤 각 지역을 순회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일보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진 의원은 이어 "너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니,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지나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발전 등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도 지방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서석초등학교를 다녔고 외가가 담양'이라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진 의원은 "호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왔다"며 "지역 현안과 민원을 국회차원에서 챙기고 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호남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

## “北 핵신고서 조만간 제출”

### 라이스 미국 국무

북한이 당초 작년말까지로 합의했던 핵프로그램 신고를 6개월째 미루고 있는 가운데 콘돌리자 리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북한이 곧 핵프로그램 관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모든 핵활동에 대해 신고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북한의 핵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영변핵시설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속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18일 북한이 이달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께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전대 ‘朴心’ 개입? 측근 허태열의원 출마 선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허태열 의원이 19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전대에 이어 '박심(朴心)'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일단 허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막관 결심을 굳히기 까지, 박 전 대표와 사전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앞서 허 의원이 몇 차례 출마 의사를 타진했을 때에도 명확한 '승인'을 내리지 않았고, 허 의원의 최종 결심도 이날 오전에야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을 통

해 전달받았다.

박 전 대표는 출마 결심을 전해받고는 "열심히 하십시오 하세요"라고 짧게 당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한 측근은 "허 의원이 앞서 박 전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전대 출마 여부를 타진했고, 박 전 대표가 그때마다 흔쾌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허 의원이 먼저 결심하고, 박 전 대표에게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측근은 "박 전 대표는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에 큰 관심

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큰 틀에서 국정과 당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서 "전대와 관련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분위기는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계파 대표주자로서 출마에 대해 최소한 '묵인' 또는 '소극적 지원' 입장을 밝힘에 따라 친박 진영에서 허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 '박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주승용·국창근 2파전

### 광주시당은 김동철·최경주 맞붙을 듯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19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당의 갈등 극복과 화합을 위해서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창근 전 의원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최경주 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가세함에 따라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당은 오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그리고 전남도당은 24일 광주영주체육관에서 각각 대의원대회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

# '08년 7월 여름방학 대특강

합격당첨 필수! 교육청장기 시험대비 특강!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직원! 부회관! 공무원! 시사! 경영! 컨설팅! 기출문제!

**개강 7월 1일**

## 여름방학 EVENT

**Event 1: 35기 합격생 1박 2일**

- 합격률 100% - 합격 100% 보장
- 합격생 10명 - 1박 2일 집중교육
- 합격률 300% 달성 - 합격 300% 보장
- 합격률 100% 달성 - 합격 100% 보장

**Event 2: 장학금 신청교사**

- 합격률 100% - 합격 100% 보장
- 합격률 100% 달성 - 합격 100% 보장
- 합격률 100% 달성 - 합격 100% 보장
- 합격률 100% 달성 - 합격 100% 보장

**동부고시학원** www.donghugosi.co.kr 02-231-0609

www.youngboosha.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약 40명)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늘리세요!”

교육과정명	차적종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차적종 2반 (사회복지사)	신규차적반 / 합격차적반
신규종1반	09:00~18:00월~금	신규종2반	18:30~22:00월~금
신규종2반	09:00~13:00월~금	차적종1반	월요일 19:00~22:00
신규종3반	14:00~18:00월~금	차적종2반	수요일 14:00~18:00
신규종4반	19:30~22:00월~금	차적종3반	수요일 14:00~18:00

**※ 교육비** 이후 시정협이 1급 국가자격증 교육비  
**고용보험 가입료**도 국가비 지원 (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도 지원 (사용량당내 7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광주점 062)364-1152~3  
 광주점 062)368-2070